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개념과 공동체성의 의미

*한혜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동시대 무용의 범주
	1. 시대적 범주
	2. 무용의 유형
	III. 커뮤니티댄스의 기능
	1. 개인적 가치
	2. 공동체성의 요소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19.07.27.

논문심사일 : 2019.08.17.

게재확정일 : 2019.09.01.

The concept of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and the meaning of communality

Han, Hea-ree · Kyung Sung University

This study interprets dance as a kind of emotional expressions contemporary individuals perform as to the world they face. In that light, the study presupposes the body in dance as the agent of expression and the place for storing assimilated memories, and assumes dance as a way to put into action the contemporary ideology. Furthermore, the study presents the function of communality as a core value of the ideology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 phenomenon of contemporary dance in the community dance organization and awarding the meaning of dance to the act.

The body in contemporary dance integrates all perceptions and experiences into a single, distinctive stream of world view. Thus, contemporary dance is the self-expression of body as a cultural memory involved in sensing.

As a core value of contemporaneous community dance, communality serves to acquire the skill to render into action the body as a cultural memory that distinctively senses the world and free spirit.

<key words>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communality, world view, cultural memory, body, self-expression

<주요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 공동체성, 세계관, 문화 기억, 몸, 자기표현

본 연구는 현존하는 무용에 대한 개념 연구로, 무용의 구성요소로 공동체성을 상정하고 그 무용의 구성 요소의 시대사회적 기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시대무용의 개념을 정립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온 무용은 어떠한 역사적 궤도를 선택하는 가에 따라 그 범주와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양식사의 궤도에서 무용은 19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지는데 그 궤도는 다분히 유럽 중심일 것이다. 문화의 지리적, 지역적(혹은 국가적) 분류 기준을 넘어 산업사회 이후 과학기술이 포함된 문화의 궤도에서 무용은 그 유형보다는 기능 혹은 역할이 무용을 인식하는 식별의 기준이 되었다. 문화에서 무용의 기능이 무용을 예술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점은 결국, 박이문(2017:237)이 제시한 “예술은 지각적으로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만 식별될 수 있는 자기반성적 존재가 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로서 무용은 기존의 정의와 규범에서 해방된 개별적인 자유인의 사고 표현으로 몸을 사용하고 무용 행위가 곧 세계관의 제시였던 때이기도 하다.

개별적 세계관의 표현인 무용 현상의 조직을 발견하고 그 체계를 설명하는 무용의 인식 과정에서 공동체성은 개별적 세계관을 가진 개인들이 이룬 집단성인 공동체 의식이다. 즉, 이데올로기 실천 방식의 하나로 무용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탐구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동시대 무용으로 지칭되는 커뮤니티댄스는 무용의 유형이나 목적을 기준으로 무용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시대사회적 의식 즉, 이데올로기의 실천인 문화의 범주에서 표현 및 소통의 도구가 개별적 몸이며 또한, 그 몸의 행위나 행동이 정신이 자유로운 개인적 정서 표현인 것들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무용에서 몸의 개별성은 인류역사의 기억의 장소인 동시에 체화된 지식¹⁾의 저장소로서 그 행위를 통해 동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읽을 수 있으며, 그러한 몸²⁾의 행위 중 하나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별자들이 지금 마주한 세상에 대한 각각의 감정을 기

1) “기존의 모든 정의나 규범에서 해방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작품이 보여주듯 예술은 무엇인가 about something의 육화된 의미 embodied meaning이라는 조건에 의해서만 규정된다는 것이다”(박이문, 2017:237).

2) “신체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의미에서 기관이며, 그래서 다시 신체의 주체자인 자아의 기관이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자 일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사유하는 자 등인 자아의 기관이다”(Husserl, E., 1925, 이종훈 역, 2013:278).

반으로 한 정서의 표현 행위를 무용으로 해석하는 본 연구는, 무용 구성 요소인 몸을 표현 주체이자 체화된 지식 기억의 장소로 그리고 그 몸의 행위를 동시대 이데올로기 실천의 한 방식인 무용³⁾으로 정의하고, 동시대 무용현상인 커뮤니티댄스의 조직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 의미 부여 과정에서 공동체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생태환경 사회 커뮤니티댄스에서 공동체와 전인교육의 의미”(2014), “동시대무용의 사상적 맥락과 사회관여성 연구”(2017a), “동시대무용의 가치 전도와 가치 창출”(2017b), “춤추는 몸의 내재성과 초월성”(2018)이 있다.

II 동시대 무용의 범주

시대는 연도의 숫자 뿐 만이 아니라, 당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등을 내포하는 다양한 용어로 기록되고 있다. 생활 용품을 기준으로 하는 고고학적 분류 기준은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 엘리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전자 시대, 전자·정보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등으로 그 용어를 확장 했다. 시대를 사상과 그 실천 양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준거는 사회 체제의 변화 또는 전쟁과 혁명의 발생을 기점으로 정치·사회 체제를 그 이전과 이후⁴⁾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데올로기가 생활양식과 동의어가 되면서 이데올로기 용어를 대체하는 millenium age, net generation 그리고 X generation 등은 세기 단위로 변화하는 환경 주기가 단축되면서 나타난 용어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의 동시대는 지금, 여기 우리가 마주한 시대로 지리적, 문화적, 연대기 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지구상의 그 어떤 역사적 사건도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지역은 없다는, 인류시민사회의 도래와 지구생명체에 대한 수용과 보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사회로 대변할 수 있다.

문화를 역사화 하려는 시도에 선행되는 사고는 다른 역사의 궤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모더니티가 시대적 범주가 아닌 질적 범주 용어이듯이 동시대는 포스트모더니티와 탈식민성이 나란히 존재하는 시대이다.

3) “기존의 모든 정의나 규범에서 해방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작품이 보여주듯 예술은 무엇인가 about something의 육화된 의미 embodied meaning이라는 조건에 의해서만 규정된다는 것이다”(박이문, 2017:237).

4) 산업혁명 이후 3차 혹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사회주의 체제, 혁명 실패기 등등

1. 시대적 범주

동시대무용에서 시대의 범주는 역사적이거나 문화적 궤도를 선택할 때 그 중심이 존재한다는 규범적 사고체계에 부딪히게 된다.

강요된 서구의 표준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유문화와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소외현상은 적개심과 분노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사태와 근본주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Nordberg- Hodge, H., 1992, 양희승 역, 2007: 242-3).

현대화가 지역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하나의 단일 문화와 경제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그 배경이 된 유럽의 19세기는 신고전주의와 고딕복고양식, 바로크 양식 등 다양한 양식이 공존한 이유로 더 이상 양식의 이름이 시대를 대변하지 못했고 포괄적으로 근대로의 통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성과 독립성의 시대인 현대의 가치가 된 것이 취향⁵⁾이라면, 이때의 취향은 그 정의를 이전과 달리한다. 즉, 개개인이 가진 삶의 태도와 가치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경향이나 안목을 구성요소로 형성된 취향을 일컫는다.

백옥인(2018:183)은 “근대 150년을 지나면서 서양문물은 생활의 일부가 되고 전통은 과거의 유물로 전락했다”고 우리의 근대를 서구의 현대와 비견한다. 인간의 행위는 다양한 궤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탈중심화는 우리가 수렴해야만 하는 가장 필수적인 구조이며, 그에 상응하는 세계관의 변화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국악과 서양 음악이 갈라졌고, 국악은 고유명사가 되고 양악은 음악의 대명사로 되었다. 온전히 자신을 의미하던 단일한 정체성이 서양과 대비되는 의미로 재배치된다. 일상생활의 모든 범주에서 ‘서양식’이라는 새로운 개체가 생겨났다. 이런 구분법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백옥인, 2018:271).

포괄적 분류체계에서 근대로 통칭되는 서구의 19세기는 예술이 지배계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예술이 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시대였다. 도시에 극장이 설립되어 공연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전통 공연단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야외 무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대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도시 시설 중 하나인 극장은 연희의 영역에서 볼거리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직업 집단을 형성하게 했

⁵⁾ 최경철(2010:407)

다는 기록이 있다.

근대전환기 이후 서구식 근대 극장이 조선에 세워지면서 자연 속에서 ‘연행’되었던 연희는 실내 공간으로 들어와 흥행⁶⁾ 되기 시작하였다(이주영, 2012: 197).

흥행된 연희로서의 무용 즉, 극장에서 전문 직업 집단에 의한 완성도를 추구하는 무용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형식면에서 테크닉의 독창성 혹은 세련화의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메시지의 윤리적, 인류애적 차원에 기준을 두어서라기 보다는 상행위商行爲로서의 무용이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접근성을 지니고 대중화를 지향하는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자기(사교, 감정)표현 행위로서의 무용을 전제하고 있다. 자기 표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행위로서의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발전(혹은 변화)을 추구하는 인류시민 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성이 핵심 가치이다.

2. 무용의 유형

일제 강점기 근대화의 산물 중 하나인 극장 공간 - 광무대와 장안사, 연흥사 같은 -은 전통 문화와 이입된 신문물 사이의 혼종 과정의 장소였다.

1930년대 무용수 배우자는 프랑스의 Revue가 이국적 취향의 춤들을 다양하게 활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민속춤, 발레, 재즈댄스를 곡예와 결합해 신기하고 놀라운 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가요나 악극 등 당대의 대중, 연예물 들을 춤과 섞어 적당히 배치해서 레퍼터리를 확대했다. 1930년대 악극단의 공연도 레뷰나 보드빌식 버라이어티 쇼와 유사한 구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것이 레뷰가 되었던 보드빌이 되었던 둘다 풍자는 빠지고 오락적 요소만 뼈대로 남았다(백옥인, 2018: 291).

사회체제를 기준으로 한 예술사의 궤도에서 왕궁이 박람회장이거나 미술관으로 전용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시기는 모두를 위한 예술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이기도하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격하되어 공개된 식민지의 왕궁과 예술은 맥락이 상실된 연유로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주체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 개체성을 확

⁶⁾ “흥행은 인간이 표현하는 예술을 대중오락으로 제공하는 상행위로, 공동체 놀이와 달리 돈을 받고 관객에게 연희와 오락을 제공한다”(백옥인, 2018:288).

보해 나가기 어려운 혼종의 문화 속 예술은 문화정책을 통해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욕망과 일상생활을 조성하고 계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대중문화와 예술은 체제 순응적인 구성원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 사회 근대의 무용이 신흥 부르주아 계급 문화의 상징 중 하나인 극장에서 지배 계급의 전유물에서 모두에게 향유 가능한 것으로 변모되어 접근성을 지니게 되었다 해도 극장의 성격과 함께 그곳에서 공연되는 무용의 수준에 따라 그 명칭이 각기 다르게 명명되어 있었다는 것은 무용 행위를 세계관의 표현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용은 그 유래와 형식적 유형에 따라 종류가 구별되기도 하지만 반면, 무용 행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별할 수도 있다. 식민지 조선의 극장 무용에서 빠져있었다는 풍자는 자아가 표현하는 세계관의 실체이다.

“자아는 유용하고 유용하지 않다든지, 좋고 나쁘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한다”(Marcuse, H., 1962, 김인환 역, 1988: 192).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을 만들고 증대하고 개량하는 능력에 따라서 평가된다”(김인환 역, 1988: 177). 포괄적인 해석에서 인류문화 변화의 요인 중 가장 중대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이고 충격적 현상은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Leger, F.의 《기계적 발레, 1924》나 Degas, E.의 《허리숙인 발레리나, 1885》의 이미지를 보고 “레제가 활동하던 시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학적, 과학적 사고 방식은 이미 하나의 신앙이다. 기계의 운동과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은 전통사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성을 향한 질주를 만들어 낸다”(박홍순, 2017:33)는 설명은 예술이 당시의 세계를 지각하는 인지 작용으로 개인적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개념의 궤도에서 가능한 것이다.

예술사의 궤도에서 이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된 배반적인 인지 체계의 원류를 Nandy, A.(2009)는 식민주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서구는 근대 식민주의를 창안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도 만들어 냈다. 노예무역은 4개 대륙이 관련됐고, 식민주의는 5개 대륙이 연루됐다. 식민주의가 사람과 문화를 유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면, 노예무역은 인간 자체를 상품화 하려는 시도였다(이옥순, 이정진 역, 2015: 21, 230).

식민주의를 산업화의 여파로 보든 당연한 귀결로 보든지 어쨌든 그것을 경험한 문화는 인식작용의 체계가 달리 형성되었고 식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세계관의 표현은 인식 대상이 되어 회상으로 현전화⁷⁾ 되고 있다. 그 현전화 중 하나가 예술로

⁷⁾ “회상은 현전화이다. 회상에 대립해 지각은 현재화이다”(Husserl, E., 1925. 이종훈 역, 2013:284).

혹은 예술행위로 변모되고 변형되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예술작품이 창조적으로 생성됨이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술가 그 정신적 삶, 그를 정신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환경세계 속으로- 당연히 역사적 자료들을 해석하는 근거에 입각해- 끌어들일 수 있을 때, 순수하게 개별적인 ‘설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예술가를 규정했던 동기들을 추구하고면서 우리는 그가 추구했던 것, 원했던 것 실현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창조한 작품 자체가 어떤 근원적 의미를 느꼈는지를 내면성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게 된다 (Husserl, E., 1925, 이종훈 역, 2013:48).

삶의 흐름에 기계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하는 국면들의 연속은 한 시대의 시점을 끝으로 소멸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유형학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혼의 연관은 영향을 끼침의 연관으로, 서로 다른 영혼의 마주침이 원인이 되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무언가를 생성하는 발전적 연관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것을 회상하고 있는 ‘현전하는 몸’의 세계관의 표현인 행위가 무용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며 자유로운 영혼의 자아 표현이다. 따라서 동시대 무용은 목적론에 따라 지배되는 행위 도구(혹은 아름답거나 선한 주체)로서의 몸이 아닌 모든 지각과 경험을 세계관이라는 개별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결합한 몸으로, 이러한 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지각하고 그 지각한 기억에 적합하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회상 즉, 현전화하는 행위가 동시대 커뮤니티 댄스라 할 수 있다.

III / 커뮤니티댄스의 기능

본문에서는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를 이데올로기 실천으로서의 문화에서 갖는 형식적 본질의 영역으로 보고, 개별적 발전과 집단적 발전의 기능 즉 공동체성 탐색을 통해 커뮤니티댄스의 시대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1. 개인적 가치

기억의 거처는 시간이기 보다는 장소다. 무용 연구에서 인류의 지식과 경험의 기억 거처로서의 몸은 회상체로 예전에 지각하고 경험한 것들이 현전해 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세계에 탄생한 것을 봤던, 그러나 더는 볼 수 없는 예술작품의 손실이라.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만든 작품에 의해서만 변화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 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⁸⁾ 예술작품은 사람들 사이의 역사에 걸쳐 어떤 것이 실제 일어났음을 증명한다(Levi-Strauss, C., 1993, 고봉만, 류재희 역, 2005:213).

한 인간 개인의 무용 행위가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미적 혹은 도덕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기준 제시에서 내용적인 측면 보다는 그 어떤 판단이든 그 판단은 작용에 의존 한다는 것이고 그 작용의 대상이 현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일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시간의 연속성이나 공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거나 기억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용은 무용 행위가 주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어떤 연관성 속에 무용이 놓여 있는가하는 사회적 인식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무용 행위는 Adler, A.(1928, 홍해경 역, 2016:64)의 용어로 ‘심리적 움직임’이므로 내재적 목표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는 정신적 활동의 가능성과 자유가 전제 되어있다. 자유가 전제로 정신활동의 표현인 무용의 구성 요인은 인간의 개별성과 독창성으로 이러한 두 성질은 무엇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의거한다. 내면세계와 연관된 무용 행위를 이끌어내는 심리적 기능으로서의 인지는 결국, 개인 정서에 의해 만들어진 표상세계이다.

기억과 판단이 요인인 정서의 기능은, 기억은 인간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인간의 자아 인식이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의 성격으로 판단되는 맥락에서 기억은 경험을 수반한 지식의 축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억은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아인식의 기준 점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상상하는 행위보다 더 확연하게 인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표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대상이 눈앞에 없어도 그 느낌과 인지를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표상이란 재생된 지각이며 생각 속에서 다시 소환된 지각이다. 표상의 산물은(…) 반응작용이 아니라 창조적인 예술작품인 것이다(Adler, A., 1928, 홍해경 역, 2016:69).

창조적 반응으로서 무용행위가 가지는 정신과 육체의 긴밀성은 내적인 용해성으로도 표현된다. 특히, 감정이 정신생활에 개입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는 몸 나타난다. 사고와 행동, 감정(혹은 감각적 인지)과 정신(지성)의 동시성을 인지하는 것은 무용

⁸⁾ 고봉만, 유재희(2005:213)의 번역서에는 “한 작은 나무를 낳은 목각상처 작품들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실제로 무엇인가가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필자가 재 번역한 것임.

에서 몸이 사고와 행위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의 무용인 커뮤니티댄스가 자아인식을 통한 자존감 형성(혹은 정체성 인식)의 기능을 갖는다면 이 때의 무용은 자기표현 기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의 행위 영역 중 하나이다. 즉,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무용행위는 언어와 문자 너머의 자유로운 사고의 독창적이고 개별적인 자기표현 기술로 해석된다. 일상세계에서 삶의 과제에 대처하는 정신의 표현방법 중 하나가 개인의 성격이다. 그러므로 성격이란 사회적 개념인데, 성격은 한 인간과 주변 세계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격은 자신의 인격을 구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커뮤니티댄스를 통한 자아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사려 깊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문제와 가능성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기능이 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자신이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의식 때문이며 이러한 자기 삶의 주인 의식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자존감의 요인은 자아 인식의 지속적 성찰 행위이고 이 행위 중 하나가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이다.

동시대를 사는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일지도 모른다. 정신생활이란 앞일을 예측하고 경험들을 추적하고, 기억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행동들은 유기체인 인간이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일상세계에서 예술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공동체성의 요소

아들러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에는 협동하는 능력, 협조하는 용기, 인간적인 동등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 연대감 그리고 공감능력이 포함되며 그것은 사람의 정신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한 척도다(홍혜경 역, 2016 : 364).

문명의 역사에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이 개인의 삶보다 선행했다는 이론은 공동체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은 생활 형태가 없었고,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인간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근거로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해 주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 공동생활이다. 그리고 공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공감력으로 그 능력의 요인은 감정이입 또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행위이다.

감정이입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다른 개인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연극은 이런 감정이입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표현양식이다. (감정이입)이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내재된 공동체 의식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우주적 감정이며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전 우주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Adler, A., 1928, 홍혜경 역, 2016:82-3.).

Baudrillard, J.(1968, 배영달 역, 2010:100)의 주장처럼 가능성이 전체로 통합되는 능력이라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에서 공동체성의 가치는 커뮤니티댄스의 기능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삶의 (진정한) 조건을 긍정하는 능력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두 차례의 세계전쟁 후 예술의 궤도는 엘리트 에너지를 자원으로 과학을 기술로 실현하는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독일의 표현주의 무용의 대표자로 기록되고 있는 Wigman, M.(1886-1973)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⁹⁾, 노화, 병을 무용으로 표현하였고, 당시 예술종합학교라 할 수 있는 바우하우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현실극복의 특성으로 생산에 참여했다. 현실을 거부하는 다다이즘의 도피 혹은 저항의 두 가지 예술이 존재하던 낭만주의 시대의 탈피가 무용사의 궤도에서는 독일의 표현주의와 미국의 신화 중심의 모던댄스¹⁰⁾로 출현했다.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같은 속도로 적응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안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본능처럼 자리하고 있다. 불안의 본능을 해소 하는 기능은 정신의 확장이고 정신 확장의 시작점이 자기 성찰이다. 자기 성찰은 곧, 자아 인식이며 그것은 결국 현재의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한 자아 인식의 과정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불안이란 보살피 주는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어야만 한다는 욕구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아인식을 위한 자기 성찰의 다음 단계가 연대감으로 개개인을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체계에서 불안은 제거될 수 있다. 즉, 불안을 제거하는 기능은 연대감의 체계에서 가능하며 연대감의 체계는 공동체성으로 인식된다.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진 개인의 사고가 자유로운 정신을 향한 길이 되는 과정은 현전하는 무용을 선형적(a priori)¹¹⁾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같은 선상에 있다. 즉 무용

9) 《마녀의 춤, 1913》, 《죽음의 무도, 1936》

10) Graham, M. 《Primitive mysteries, 1930》, 《Appalachian spring, 1944》, 《Cave of the heart, 1946》

11) 본문에서는 “논리적으로 경험에 앞서며, 인식적으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라틴어(Husserl, E., 1925, 이종훈 역, 2013:51)”의 의미로 사용.

을 여러 가지 중 사회 행위 중 하나로 상대화하고 다른 공공의 가치와 공존하는 연대의 관점을 가질 때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진정한 의미도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예술행위는 행위자의 무의식 안에 있는 소망과 갈등의 표출이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기 승화에 도달하는 무용행위는 다른 사람의 같은 행위와 나란히 위치할 때, 소통의 기능으로 가치를 획득한다. 달리 표현하면, 무용을 공유한다는 것은 다른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진 개별자들과 의사를 소통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정체성으로 개인과 집단을 마주하게 되는 체계의 무용이 커뮤니티댄스이다.

체계로 존재하는 행위로서의 무용이 커뮤니티댄스라는 논리에서 공동체성의 의미는 반드시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진 개인을 전제한다. 그리고 개인의 다른 사고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만들고 그러한 영혼이 각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며 이러한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소통 행위로서의 무용이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라는 논리이다.

무용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예술가가 인식한 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인식의 대상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다른 사고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저장소 혹은 흔적으로서의 고유성이 장착된 몸¹²⁾이 마주한 세계가 제시되는 삶의 현장에 대칭적 관계에서 참여하여 서로의 다름과 자신의 독자성을 인지하는 순간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로 자발적 행위가 커뮤니티댄스로 자유로운 영혼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개인과 자기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이 핵심 요소이자 가치이다.

이러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이론의 용어로는 세계관, 도덕관, 윤리관에 연계된 자기표현기술 그리고 인지, 판단과 연관된 공감능력, 역지사지易地思之 혹은 상상, 상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감지¹³⁾를 통해 뇌에 전달되는 외부 세계에서 받은 인상들과 자극 중 사라지지 않고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 중 하나인 문화 기억체로서의 몸이 표상하는 세계 혹은 기억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 커뮤니티댄스의 조직 구조이고 이러한 구조를 가진 커뮤니티댄스는 그 체계속에 교육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란 역설과 복잡함과 끊임없는 변화와 예상을 뒤 엮는 혼란스러운 실재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¹²⁾“인류가 습득한 관념이나 능력을 유전 물질에 저장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개념과 공동의 도구 및 문화에 저장하기 때문이다”(Hofstadter, D., Sander, E., 2013, 김태훈 역, 2017:183).

¹³⁾“본능적 감각 인식과는 다른 행동하는 주체의 경험적 인지인 감지(sommatation)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몸의 인지 기능으로 탐색하였다. 인지의 영역에서 몸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는 매개체라 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행위 주체로, 자아상의 외존 상태이자 내면의 표현체이다(…)몸이 외부를 수용하는 행위가 감지이다”(한혜리, 2019:66).

우리의 연구에서 실험실의 비중보다 현장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과학적 진보는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이다(Nordberg- Hodge, H., 1992, 양희승 역, 2007:334).

집단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댄스의 공동체성은 혈통이나 출신에 의해 생득되는 것이기 보다 학습이나 소속감의 획득을 통해 형성된다. 보편적 의미에서 집단 정체성이라 말하는 사회적 소속감은 지식과 기억을 공유하는 데서 형성된다. 역사가 집단기억이라면 문화에서 무용 행위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마주하면서 형성되는 공감과 이해의 구조에서 형성되는 집단의 공동 의식으로 그 공동체의 주요 요소는 고유성과 독자성으로 발현되는 개인이다. 즉 동시대 커뮤니티 댄스의 핵심 가치로서의 공동체성은 고유한 독자성을 지니고 세계를 감지하는 문화 기억체로서의 몸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의지를 행위로 표현하는 기술에 있다.

IV 결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별자들이 지금 마주한 세상에 대한 각각의 감정 표현 행위 중 한 범주로 무용을 해석하는 본 연구는, 무용에서의 몸을 표현 주체이자 체화된 지식 기억의 장소로 그리고 동시대 이데올로기 실천의 방식 중 하나로 무용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탐구의 절차는, 동시대 무용 현상을 커뮤니티댄스의 조직에서 발견하고 그 행위에 무용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의 기능을 이데올로기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목적론에 따라 지배되는 행위 도구(혹은 아름답거나 선택한 주체)로서의 몸에서 벗어나, 생각과 행동의 주체로서의 몸으로 의사소통의 행위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댄스는 모든 지각과 경험을 세계관이라는 개별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결합한 몸이 현실을 지각하고 그 지각한 기억의 흔적을 현전화하는 무용행위이다.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동체성은 고유한 독자성을 지니고 세계를 감지하는 문화 기억체로서의 몸과 자유로운 영혼을 행위로 표현하는 방법 습득의 교육적 기능을 지닌다.

- 박이문(2017), **박이문의 서재**, 서울: 미디어 북스.
- 박홍순(2017), **생각의 박물관**, 서울: 웨일 북.
- 백옥인(2018), **번안사회**,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 이주영(2012), “광무대 연구: 제국의 시선으로부터 비껴간 근대 극장”,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학 48권**, 197-224.
- 최경철(2010), **유럽의 시간을 걷다**, 서울: 웨일북스.
- 통합유럽연구회(2018),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 서울: 도서출판 책과 함께.
- 한혜리(2014), “생태환경 사회 커뮤니티댄스에서 공동체와 전인교육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권 4호**, 1-16.
- _____(2017a), “동시대무용의 사상적 맥락과 사회관여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8권 3호**, 81-99.
- _____(2017b), “동시대대무용의 가치 전도와 가치 창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8권 4호**, 65-78.
- _____(2018), “춤추는 몸의 내재성과 초월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9권 2호**, 107-120.
- _____(2019), “무용에서 감지의 기능과 담화화 과정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30권 2호**, 63-76.
- Adler, A.(1928), *Menschenkenntis*, 홍혜경(역, 2016), **아들러의 인간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 Baudrillard, J. (1968), *Le system des objets*, 배영달(역, 2011), **사물의 체계**, 서울: 지만지.
- Floch, Jean-M. (2010), *Identités visuelles*, 권승태, 박일우(역, 2017), **비주얼 아이덴티티, 차이와 지속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odge, Helena N. (1992),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양희승(역, 2007), **오래된 미래: 라다르크로 부터 배우다**, 서울: 중앙일보플러스.
- Hofstadter, D., Sander, E. (2013), *Surface and Essence*, 김태훈(역, 2017), **사고의 본질**, 파주: 아르테.
- Husserl, E.(1925), *Phänomenologische psychologie*, 이종훈(역, 2013), **현상학적 심리학**, 파주: 한길사.
- Levi-Strauss, C. (1993), *Regarder, Ecouter. Lire*, 고봉만, 류재희(역, 2005), **보다, 듣다, 읽다**, 서울: 이매진.
- Marcuse, H.(1962), *Eros and civilisation*, 김인환(역, 1988), **에로스와의 문화**, 나남.
- Nandy, A.(2009), *The intimate enemy*, 이옥순, 이정진(역, 2015), **친밀한 적**, 파주: 창비.
- Panofsky, E. (1962), *Study in iconology*, 이한순(역, 2013), **도상해석학 연구**, 서울: 시공 아트.